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hursday 13 May 2010 (afternoon)
Jeudi 13 mai 2010 (après-midi)
Jueves 13 de mayo de 2010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약수터’ 가는 길

흙을 밟고 싶을 때 나서는 산보길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그 길은 조그만 저수지 옆에서 시작된다. 논과 밭사이를 구불구불 지나 화물기차가 시골 노인네처럼 느릿느릿 지나가는 철길을 건너면 아카시나무와 오리나무가 제법 보기 좋은 야산이 다가선다. 산등성이를 올라가다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길이 허리끈처럼 풀어져 밭그레 내려다보
5 인다.

사람들의 무수한 발이 타박타박 걸어서 생긴 길. 앞서간 사람들이 뒷사람들을 위해 차곡차곡 발자국을 쌓은 길. 돌아가야 할 곳은 돌고 피해 가야 할 곳은 피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끈질기게 생겨난 길. 곧장 뻗은 ‘도로’ 만 보아온 내 눈에 그 길은 눈물이 펄펄 돌 만큼 다소곳하고도 지극하다. 아마도 그런 길만 보며 사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욕에 생을 허비하는 실수를 하거나 남들보다 먼저 어찌
10 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불행을 겪지는 않으리라 싶다.

그 길은 꽃길이었다. 그곳에는 꽃다지가 깨어나는 이른 봄부터는 산국이 피는 늦가을까지 색색의 꽃이 줄을 지었고 여름엔 웅덩이에서 땡땡이 소리도 들렸다. 약수터 근처에선 특히 물봉선과 고마리가 고왔다. 물가에 무리지어 피는 꽃분홍 물봉선과 산골 메밀꽃처럼 소박한 고마리는 서로 서로 잘도 어울려 늦여름 약수터는 은근하고도 화사했다.

이제 그곳은 황량하게 변해버렸다. 우선 그 길 초입부터 골프연습장에서 들려오는 메마른 파열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 겨울이 되면 그 길은 더 끔찍하다. 퍼런 것들이 있을 땐 그나마 가려져 보이지 않던 온갖 쓰레기들이 사방에 시체처럼 나뒹군다. 콜라병, 가스 강통, 소주병, 우산, 플라스틱 바구니, 구두 한 짝, 각종 일회용 그릇, 고추밭을 덮었던 시커먼 비닐에 소파나 냉장고 같은 대형 쓰레기까지
15 도무지 숨이 막힌다.

도대체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쏟아져나오는 것일까. 백화점과 슈퍼에 산처럼 쌓여있는 물건들은 잠깐 사이에 이런 쓰레기로 변한다. 쓰레기장은 백화점의 또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 길은 황량한 길이 아니라 끔찍한 길로 변해갔다.

어느 날부터가 길 옆 들 개발에 “맹독성 농약 뿌렸음”이라는 팻말이 섰다. 약수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 애써 기른 깻잎을 마구잡이로 뜯어가자 이에 격분한 밭주인이 그런 살인경고
25 를 내붙였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깻잎 몇장 공짜로 갖겠다고 남의 밭을 마구 밟아놓는 짓을 하게 되었고 사람 먹고 사는 푸성귀에 독약을 뿌렸노라 아무렇지도 않게 으르렁거리게 되었을까.

우리 아파트도 빠르게 변했다. 십여년 전 우리가 처음 이사왔을 즈음만 해도 아파트 마당엔 승용차가 몇 대 없었고 그 대신 한구석에 예쁜 천막집이 세워져 있어 아이들의 자전거와 플라스틱 말을 그 곳에서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아파트 마당은 자동차로 점령 당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30 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길을 부지런히 오간다. 가방을 메고 소형 수레를 끌고 아니면 아예 오토바이까지 부릉댄다. 사람들은 모두 그 쓰레기밭과 살인경고판을 지나 아무렇지도 않게 약수터로 간다. 수돗물에

서 소독약 냄새가 나서, 수돗물을 믿지 못하여, 아니면 운동 삼아 간다는 약수터, 그 약수라는 말이 '농약수'의 줄임말처럼 들린다.

35 나는 이런 우리 모습에 문득 지구 최후의 주민들이 물을 구하러 가는 광경을 떠올렸다.

유소림<퇴곡리 반딧불이>(2008)

- 이 글의 주제에 대해 논하시오.
- 이 글에서 제시하는 길과 그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이 글에서 비유적 대비를 통해 작가가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 이 글에서 작가는 이 글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임께서 부르시면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5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 없이 재 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10 포곤히 풀린 봄 하늘 아래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님께서 부르시면.....

15 파아란 하늘에 백로가 노래하고
이른 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빛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신석정 <동광>(1931)

-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 이 시 나타난 반복 효과와 운율에 대해 논하시오.
- 이 시에 나타난 분위기는 어떠한가?
- 이 시에 나타난 시각적 이미지 활용에 대해 논하시오.